

# 與 “공수처 국민 명령 이행” … 野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 오늘 정기국회 종료…민주, 공정경제 3법 등 쟁점법 처리 방침 국민의힘 철야 농성 … 피켓시위·필리버스터 등 여론전에 총력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안전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와 민주주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국민 대다수는 공수처 출범을 명령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보관리의 심정으로 공수처 출범을 위해 힘써왔다”고 평가했다. 또 “어렵게 열린 후보 추천위원회 마저 묻지마 비토권을 악용해 빈손으로 종료시켰다”면서 “지금은 국회농성이라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의결을 진행하겠다”면서 “민주당은 책임여당으로서 공수처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외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걸린 정부위,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있는 환노위 등도 이날 조정위 절차를 마무리짓고 본회의에 법안들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3법을 심사할 것을 국민의힘에 계속해서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심의 회의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왔다”면서 “입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억지와 지연전술에 더는 끌려갈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여 년간 여야 모두 약속만 반복하고 아무것도 실현하지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서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전략을 꺼내 들더라도, 범여권 의석까지 규합해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종결할 방침이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재적의원 5분의3으로 종결시키기 위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므로, 의원들은 본회의에 모두 참석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전날부터 국회 로텐더를 철야 연좌농성 중인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피켓시위 등 일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항전하겠다는 태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향해 “이 법이 왜 악법이고 민주당이 어떻게 폭정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국민들께 최대한 알려야 한다”며 “일방적 진행을 방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소위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축조 심사’(의안의 조항을 낭독하며 진행하는 심사)를 꼼꼼하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준법 투쟁’도 벌일 방침으로 전해졌다. 특히 본회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오른손 막으면 왼손으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왼손으로 의사봉을 잡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법 통과를 가로막기 위해 마지막 저지선을 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필리버스터 계획에 대해서는 “전략을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수직 열세로 인해 법안 통과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제한적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지만, 여당의 일방처리를 규탄하는 여론전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인다는 결의다.

국민의힘에서는 합법적 수단으로 법안처리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 내년 4·7 재보선 15곳…여야 본격 선거전 돌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120일 앞둔 8일부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5일부터, 군의원과 군수는 내달 24일부터 진행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총 15곳이다. 서울·부산시장 외에 당선무효로 자리가 빈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서울 강북구 및 경기 구리시 등 사·도의원 5곳 등이다.

공식 선거 일정이 막을 올리면서 여야의 후보들도 본격적으로 선거전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호, 박주민 의원의 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부 장관이 출마 여부를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당내 경선 출마를 전제로 3표전 구도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경선을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인사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준 전 의원, 김선동 전 사

무총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준희 전 송파구청장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다.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역시 사실상 도전 의사를 밝히는 등 야권의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이른바 ‘오유안’의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변수가 되고 있다.

야권 주자들은 부동산시장 대책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쟁점이라고 보고 주택 공급과 중부세 감면 등 정책 공약을 앞다퉀 내놓고 있다. 민주당도 민생정책 공약을 제시할 계획이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민주당에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해영 전 의원이 거론된다. 병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의 의장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국민의힘에서는 유기준 유재중 이진복 박민준 박형준 이연주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역 중에는 부산시장을 지냈던 서병수 의원이 다시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박영선 19.9% vs 나경원 15.5% vs 오세훈 14.9%

### 리얼미터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부 장관이 선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5~6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05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이 19.9%의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5.5%, 오세훈 전 서

울시장이 14.9%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 3.5%p)에서 뒤를 이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10.5%, 금태섭 전 의원 7.1%, 민주당 우상호 의원 6.1% 순이었다.

선관직으로 제시된 12명의 후보가 받은 지지를 범여권과 범야권으로 나눠 각각 합계를 비교하면, 야권 후보 8명에 대한 지지 총합이 51.3%로 여권 37.1%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후보에는 민주당을 탈당한 금 전 의원이 포함됐다.

내년 보궐선거의 프레임과 관련해서도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야당 지지론이 50.6%로 절반을 넘었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을 지지한다는 의견은 38.7%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4.4%, 국민의힘이 32.1%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이어 국민의당 6.5%, 정의당 5.2%, 열린민주당 4.9% 등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신정훈, 신설 공공기관 입지 혁신도시 우선 고려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8일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신설 공공기관 분사 또는 주사무소 입지로 혁신도시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3년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 조사에 필요한 공공기관 직원 수 등 규모, 지방세 납부 현황, 사무소 소재 현황, 기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권을 명시했다.

신 의원은 “참여정부가 그렸던 혁신도시의 미래



를 완성하고, ‘혁신도시 시즈 2’ 성공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시급하다. 혁신도시가 각 지역별 성장을 견인할 거점으로 제대로 서기 위해선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의 시너지 극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신설 공공기관 입지타당성 심사제 도입을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